

## '우리도 꿈속에서는 계획이 있다', 권력과 자본의 상징성에 대한 서사

August 14, 2019 | 김수아 기자

page 1 of 6

### 덴마크 출신 3인조 작가그룹 수퍼플렉스 개인전



덴마크 출신 3인조 작가그룹 수퍼플렉스(SUPERFLEX) / 사진= Luka Rone,국제갤러리

"우리도 꿈속에서는 계획이 있다(In our dreams we have a plan)"는 세계적 팝그룹 아바의 '머니 머니 머니'의 가사 중 한 부분이다.

국제갤러리 부산점은 14일부터 10월 27일까지 덴마크 출신 3인조 작가그룹 수퍼플렉스(SUPERFLEX)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1993년 야콥 핑거(Jakob Fenger), 브외른스테르네 크리스티안센(Bjørnstjerne Christiansen), 라스무스 닐슨(Rasmus Nielsen)이 결성한 그룹인 수퍼플렉스는 현대사회 속 작가의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자문하며 글로벌 세계 및 권력 시스템의 성격을 고찰해왔다.

국제갤러리와 첫 번째 전시인 '우리도 꿈속에서는 계획이 있다(In our dreams we have a plan)'에서는 특히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라는 구체적인 사건을 매개로 권력과 자본의 상징성에 대한 서사를 엮어낸다. 본 전시의 제목은 1976년 발표된 아바(ABBA)의 "머니 머니 머니(Money Money Money)" 중 가사 한 소절을 차용한 것으로, 기존 가사의 '나(I)'를 '우리(we)'로 바꿈으로써 더 이상 개개인이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닌, 인류 전체가 당면한 위기를 시사한다.



'Bankrupt Banks', 'The Corrupt Show and the Speculative Machine' 전시전경, 후맥스 현대미술  
재단, 멕시코 시티, 멕시코, 2013 / 사진= 슈퍼플렉스, 국제갤러리

갤러리 한쪽 벽면을 장식하는 'Bankrupt Banks'는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당시 파산을 선언하고  
여타 금융 및 정부 기관에 인수된 은행들의 로고를 회화의 형태로 변안한 작업이다. 한때 권위와  
자신감의 상징으로 기능토록 고안된 로고들이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징물, 실패한 권  
력구조의 초상이 되어 내걸린다.



'Bankrupt Banks', October 30, 2013 Black painted MDF with printed letters, 200 x 2040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 사진= Andreas Zimmermann , 국제갤러리

한편 그 반대쪽 벽면에는 2008년 7월 14일 얼라이언스 앤드 레스터가 산탄데르 은행에 인수되었다는 사실을 시작으로, 세계 금융권의 구조조정에 대한 전체적인 연대기가 기다란 검정색 패널 위에 정리되어 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변칙성을 시각화한 또 다른 작업인 'Connect With Me'는 동시대 가장 논쟁적인 화폐종류인 비트코인의 급격한 가치 변동을 보여준다. 최고가가 기록된 18개월의 기간을 포착해 그사이 급변하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그래프의 형태로 시각화한 조각 작품이다.

지난 2008년 전세계를 강타한 금융 위기는 선진 금융을 향한 믿음, 신자유주의에 대한 신뢰를 앗아갔다. 더 나은 미래를 창출하겠다는 유토피아적 모더니즘을 경험해본 적도 없던 세대는 얼떨결에 전지구화에 대한 환상의 붕괴를 목도하며 포스트모더니즘의 종결을 맞이했다.

급변하는 인류의 세상을 자연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한 수퍼플렉스는 갤러리 입구에 설치한 'Après Vous, Le Déluge' 조각 작품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해 경고한다. 벽면에 새겨 넣은 세 개의 푸른 유리조각은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정리한 예상치에 근거하여 향후 기후 변화에 따라 상승할 해수면의 높이를 가리킨다.

시대를 가능하는 새로운 눈을 제공하는 것이 현대미술가의 역할이라 상정할 때, 수퍼플렉스는 우리의 현재와 근미래를 추동하는 비가시적 힘을 충실히 시각화해 내고자 한다.



'Connect With Me', 2018, Steel tubes, polyurethane enamel paint 423 x 75 x 86 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 사진=Ben Koechlin, 국제갤러리

## ■ 작가 소개



덴마크 출신 3인조 작가그룹 수퍼플렉스(SUPERFLEX) / 사진=Jan Søndergaard, 국제갤러리

수퍼플렉스는 1993년 야콥 핑거(Jakob Fenger), 브외른스테르네 크리스티안센(Bjørnstjerne Christiansen), 라스무스 닐슨(Rasmus Nielsen)이 결성한 3인조 그룹이다. 자신의 작업을 '도구(Tools)'라 명명하는 이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매개로 경제적 생산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할 것을 제안해왔다. 경제시스템과 생산조건을 고찰하는 수퍼플렉스의 작업은 흔히 미술작품과 실용적 물품 사이를 오간다.

수퍼플렉스는 런던 테이트 모던(2017), 멕시코시티 후멕스 현대미술재단(2013), 런던 사우스 런던 갤러리(2009), 스위스 쿤스트할레 바젤(2005)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샤흐자 비엔날레(2017, 2013), 광주 비엔날레(2018, 2002), 상파울루 비엔날레(2006) 등 다수의 비엔날레 및 단체전에 초대되었다.

한편 수퍼플렉스는 최근 한국, 덴마크 수교 60주년을 기념, 파주 도라산전망대에 관람객 마음에 내재한 '집단'의 잠재력과 '협업'의 중요성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3인용 모듈식 그네 작품 '하나 둘 셋 스윙!(One Two Three Swing!)'을 선보이며 크게 화제가 된 바 있다.